

특검후보군 4명 여야 합의로 추천

세월호범 참사 167일만에 타결...가족대책위는 거부

세월호 참사 167일 만인 지난 30일 사고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함에 따라 국회도 정상화됐다. <관련기사 4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잇따라 회담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지난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고,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조직법, 유방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함께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며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은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회생자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로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이 추가됐다.

2차 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여기에 여야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

여야 합의 주요 내용

- ①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 ②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 ③ 유족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
- ④ 정부조직법, 유방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
- ⑤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는 '이중 장치'를 만들었다.

이날 협의과정에서 새정치연합과 유족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유족이 참여하도록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결국 유족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단원고 학생 희생자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최종 타결안을 공식 거부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7년 낚은 배·초짜 선장... '세월호' 이후 달라진게 없다

홍도 해상 바캉스호 좌초 승객 등 110명 전원 구조

■ 홍도 해상 유람선 바캉스호 좌초



■ 세월호와 닮았다

- 승객 전원 30분만에 구조
- 선원들 끝까지 배 지켜

■ 세월호와 닮았다

- 선령 27년...노후된 선박
- 육안으로 똑똑 부실한 점검
- 주민들 탄원 무시한 운항



지난 30일 오전 9시 11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유람선 바캉스호가 좌초되자 인근 어선이 현장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30일 오전 9시14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동쪽 110m 해상에서 신안선적 171t급 유람선 홍도 바캉스호(정원355명)가 암초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관련기사 6면>

이 배에는 관광객 105명, 승무원 5명 등 총 110명이 탑승했다.

바캉스호는 이날 오전 7시20분 승객을 태우고 홍도항을 출항, 슬픈여배우 등 2시간 가량 해상 유람을 하고 돌아올 예정이었다. 사고는 슬픈여배우를 지나 홍도 동쪽으로 가던 중 발생했다.

유람선 운항과 안전을 책임지는 5명의 선원은 '공' 하고 배가 암초와 부딪던 뒤 기관실이 서서히 침수되자 재빨리 승객들을 이 머물던 1, 2층으로 올라갔다. 이후 "침착하세요", "구명조끼를 입으세요"라고 외쳤고 불과 5분 만에 승객 전원이 구명조끼를 입고 배를 빠져나갈 준비를 끝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기다리라"는 방송만 반복하고 켈째 몸을 피했던 '세월호 선원'과 이번 바캉스호 선원의 대응은 달랐다.

선 주민 도움도 신속했다. 마을 방송을 듣고 어선을 몰고 나온 20여 명의 주민들도 저마다 구조한 승객을 물으로 옮기는 등 적극적인 도움이 됐다.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 '썬플라워' 선원들은 바캉스호 뱃머리 쪽이 기울기 시작하자 배를 접근시킨 뒤 승객들의 손을 잡아 수십 명의 승객들을 신속하게 구조해냈다. 바캉스호 선장 등 선원 5명은 마지막 승객이 배를 떠날 때까지 유람선을 떠나지 않고 배를 지켰다.

반면 이번 사고는 세월호와 닮은꼴도 많았다.

우선, 좌초 사고를 낸 유람선 홍도바캉스호 문도(56) 선장은 지난 9월 16일 선장

으로 등용한, 사실상 '초짜' 선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 선장은 해기사 3급 면허를 소지하고 여객선·철부선 등에서 30년 가까이 운항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야야 해당 선박에서 근무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때도 1년 남짓한 경력의 3등 항해사가 위험 수역을 운항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일본에서 오래된 배를 들여와 리모델링을 거쳐 운항한 점도 닮은꼴이다.

홍도바캉스는 지난 1987년 일본에서 건조된 171t급 선박으로 선사측은 27년된 선박을 10억원에 사들여 5억원을 들여 수리한 뒤 지난 4월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에서 선박검사를 거쳐 다음달 목포해경의 운항 면허를 받았다. 주민들도 기존에 운항중인 유람선 7척(7~10년)에 비해 너무 노후됐다고 하며 해양경찰에 탄원서를 냈었다. 사고 한 달 전에는 기관 고장을 일으

키기도 했었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부실한 안전 점검도 비슷하다. 홍도바캉스의 경우 수백명을 태우는 유람선인데도, 여객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점검 수준은 지나치게 낮았다.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내거나 운항관리규정을 승인 받는 등의 절차도 없고 출항 전 해양경찰의 '육안 점검'이 고작이었다.

/김지훈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볼링 박종우·최복음, 요트 김창주 금메달

광주·전남 선수들이 금메달 3개를 추가했다.

박종우(23·광양시청)·최복음(27·광양시청)을 앞세운 한국 남자 볼링 대표팀은 5인조에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박종우는 개인종합에서도 우승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박종우·최복음 등 한국 남자 대표팀은 30일 경기 안양호계체육관 볼링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5인조 경기에서 6게임 합계 6228점을 획득, 정상에 올랐다.

박종우는 개인전과 2·3·5인조 경기에서 남긴 개인별 점수를 합산한 순위를 가리는 개인종합에서도 1위(5047점)에 올라 한꺼번에 2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 남자 개인종합 정상에 오른 것은 박종우가 처음이다.

곡성 출신의 여자 볼링 대표팀 막내 이영순(18·한국체대)은 2·3인조 동메달에 이어 5인조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여수 출신 김창주(29·인천시체육회)는 요트 남자 470급에서 김지훈과 호흡을 맞춰 금빛 물살을 갈랐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10월19일(주일)~22일(수요일)
장소: 광신대학교, 광주신일교회
문의: 062)605-1000
광신대학교

예능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4년 10월호

9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문화전당 에너지 받아
진화하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그랜드플랜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광 눈 앞, 아시아문화전당과
새롭게 그려가는 광주문화 지형도

기획
레디, 액션!
남도는 영화 촬영중

영화 촬영지로 주목받는 전남의 매력
해남, 진도, 완도 '명랑 효과'에 인기 급상승

축제 속으로
남도의 가을, 축제가 열렸네
다양한 테마의 광주·전남 축제 소개

해외 문화 기획
대만 타이베이 시립동물원
아생 달은 사육환경, 이것이 동물 복지

예향 초대석

민중 사학자 이이화의
역사를 보는 해안
"동학정신으로 오늘의 문제
밝혀야 합니다"

마주 읽은 책과 삶
문필가로 다시 돌아온
유시민의 근황과 책이야기

이달의 아티스트 | **국악인 오정해**
서편제와 운영적 만남 이후 21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 온 무대들

만민클럽
번뇌도 스트레스도 단칼에 '압'
기자자동차 광주공장 해동검도동호회

스포츠 이야기
3년 연속 4강 탈락, 기아타이거즈
"바닥 쳤으니, 이제 일어서자"

스타 데이트
영화 '두근 두근 내 인생'
아버지로 열연한 배우 강동원
"관객의 가슴 따뜻해졌으면 해요"